

일본의 한국산 휘발유 수입동향과 시사점

- 일본에서 한국산 휘발유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, 일본의 휘발유수입의 90%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휘발유의 대일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음
-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제까지는 동남아시아시장에서 석유제품의 공급부족으로 한국산 휘발유의 수출가격이 상승하였으나, 향후 원고·엔저 영향으로 수출가격이 상승하여 대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
□ 동남아시아의 공급부족으로 한국산 휘발유 가격 상승

- 한국산 휘발유가격의 상승은 일본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
 - 특히,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석유제품의 수입이 증가
 - * 인도네시아는 정기수리로 인한 정유소의 가동중단으로 한국산 휘발유 조달이 증가

□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휘발유의 가격도 상승 기조

- 수입품의 약 90%를 점하는 한국제품의 스포트가격(업자간 전매가격)이 11월 상순에 비하여 10%이상 상승, 일본산에 비하여 약 5% 비쌈
- 이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일본 국내 휘발유 가격에는 하락억제 요인으로 작용

- 일본의 에너지정보회사인 림정보개발에 의하면, 한국산 휘발유의 스포트가격은 현재 리터당 69엔 정도
- 일본산 스포트가격 리터당 65엔 정도에 비하여 4엔(약 5%) 높음

□ 한국의 휘발유 수출가격은 싱가포르의 시장가격에 연동

- 아시아시장의 석유수급은 공급부족상태에 있는데, 관련 지표인 싱가포르시장의 휘발유 가격은 현재 배럴당 118달러 정도로 최저가였던 11월 상순에 비하여 7% 높음
- 싱가포르 시장의 가격에 연동되기 쉬운 한국산의 수출가격도 상승경향을 계속하고 있음

□ 일본산 휘발유 가격은 시황 침체로 하락

- 일본 국내수급 동향이 강하게 반영된 일본에서는 판매부진으로 휘발유 시황이 침체
- 케이힌(京浜)지구의 스포트가격은 최근 최고가였던 9월 하순에 비하여 7% 낮음
- * 일본석유연맹이 발표한 11월 11일~17일 출하량은 9월 평균에 비하여 6% 적음
-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21일 발표한 19일 레귤러휘발유의 점두가격은 지난주 대비 0.5엔 낮아진 리터당 145.7엔으로 8주 연속 하락

□ 일본산 휘발유의 공급 증가로 한국산 수입이 감소

- 일본에서 한국산 휘발유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

-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7~9월의 휘발유수입량은 약 82만kl로 전년 동기비 25% 감소
- 작년에는 대지진의 영향으로 JX니코닛세키에너지의 센다이(仙台) 정유소 등의 가동이 정지되어 수입품이 증가했으나 금년에 가동을 재개
- 일본 국내제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입품은 채산이 맞지 않아 감소경향에 있음
- 일본 국내 판매에서 차지하는 수입품의 비율은 5~6%정도
- 시장에서는 아시아의 휘발유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, 한국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음
- 한국제품의 상승으로 일본 국내휘발유 가격은 하락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음

□ 원고·엔저의 영향 관련 시사점

- 2개월 전만 해도 한국산 휘발유의 대일수출 가격(일본의 수입가격)이 7%나 싸 일본산 휘발유가격의 상승폭을 억제, 일본 석유정제업자들의 수익을 압박했음
- 한국산 휘발유 수출가격 하락 → 일본의 한국산 휘발유 수입 증가 → 일본산 휘발유의 가격의 상승억제 효과
- 그리고 이번에는 2개월 전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한국산 휘발유 수출가격 상승 → 일본의 한국산 휘발유수입 감소 → 일본산 휘발유의 가격의 하락억제

- 최근 일본의 휘발유 수입량 변화에는 ①일본산 휘발유공급량, ② 휘발유의 수입가격,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①의 요인은 소멸되고, ②의 수입가격요인에 의해 수입량이 결정되고 있음
- 그리고 수입가격요인 중 환율요인이 중요한 데, 최근까지는 원저·엔고 기조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석유제품 수급상황에 의해 일본의 휘발유 수입가격과 수입량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음
- 그러나 11월 초순경부터 엔화는 달러당 80엔대를 돌파 82엔 50전까지 엔저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, 원화는 달러당 1,100엔대를 돌파 1,080엔까지 원고가 진행되고 있음
- 이 같은 원고와 엔고의 동시진행은 이중으로 일본의 휘발유 수입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산 휘발유의 대일 수출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11.23)